컨슈머타임스
Consumer Times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안성렬 기자 | 승인 2026.11.05 08:36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 모습(사진제공=한국발명진흥회)

컨슈머타임스=안성렬 기자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의 신뢰도와 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 평가기관 소속 전문 인력들의 실무 역량 다지기에 나섰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하반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열었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해당 연수는 평가기관(발명 등의 평가기관) 소속 평가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끌어올려 도출되는 평가결과서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과정은 가치평가 모델에서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변수와 추정 근거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가치산정의 기본 이론적 배경은 물론 현장 평가 실무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세부 쟁점들을 두루 짚었다.

특히 기업 사업계획과 시장 전망 분석을 결합한 매출액 추정 기법과 함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을 합리적으로 산출해 최종 현금흐름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계산 방법론이 집중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평가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 구성 덕분에 향후 실제 평가 업무에서 직면하는 변수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발명진흥회는 평가자 전문성 확립을 통한 시장 신뢰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걸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본부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체계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평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평가기관의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렬 기자